

CTC바이오, AI 소독제 품목허가 취득

CTC바이오는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서 AI(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용 소독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바이로시드(Virocid)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품목허가를 취득했다.

바이로시드는 벨기에의 시드라인 제품으로 대부분의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소독효과가 탁월하며 세계적으로 60여회의 실험을 통해 AI 바이러스에 대해 강력한 예방 효과를 인정받았다.

CTC바이오는 2월부터 바이로시드를 국내에 공급한다.

조호연 대표는 “바이로시드의 국내시판을 위해 강원대 수의과학대학에 의뢰해 2개월 간 AI 소독제 효력실험을 한 결과 만족할만한 성과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 기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2/03>